

석유업계의 경영환경과 과제

李 彰 圭
(油公 기획과장)

1. 精油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달러박스」도 세월에 따라 달라진다.

60년대만 해도 合板이나 무역이, 70년대엔 石油·건설이 한몫 잡더니 이젠 에너지와 금융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精油業이 상위랭킹으로 올라간 것은 세계적인 현상.

기름값의 대폭 상승으로 外形이 크게 늘어나고 석유위가 속에서 짹짹한 재미를 보고 있다.

정유회사들이 수지가 맞느니, 안맞느니 하고 업살을 부려도 여전히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82년 9월 국내 모일간지에 게재된 「돈·기름 장사가 역시 짹짹」이란 題下의 국내기업의 '81년도 경영 성과에 대한 해설기사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흔히 石油産業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혹은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라고 부른다. 이 말은 석유산업의 경영 성과가 아주 양호하며 어떠한 환경변화에서도 양호한 경영 성과가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면 국내석유산업의 경영성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울만큼 정말 양호한지 알아보기로 하자.

2. 石油産業의 경영成果 분석

우선 '80년대의 석유산업 경영성과를 제조업 평균과 비교해 보면, 석유산업의 '80~'88년 평균 자기자본이익

률은 3.6%로 제조업 평균이익률 4.3%에 비해 0.7%가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석유산업이 뛰어난 경영성과를 기록했다고는 결코 할 수 없다.

자기자본 이익률 비교

	석유산업		제조업	차 이	
	전 체 (A)	정유사업 (B)	평 균 (C)	A - C	B - C
1980	△31.3	△60.9	△ 6.8	△24.5	△54.1
1981	△ 8.3	△18.6	△ 4.6	△ 3.7	△14.0
1982	17.2	20.7	0.2	+17.0	+20.5
1983	4.5	0.5	8.7	△ 4.2	△ 8.2
1984	6.4	4.8	6.3	+ 0.1	△ 1.5
1985	9.6	11.2	5.6	+ 4.0	+ 5.6
1986	11.9	9.4	10.2	+ 1.7	△ 0.8
1987	11.6	9.8	9.6	+ 2.0	+ 0.2
1988	11.3	8.5	9.0	+ 2.3	△ 0.5
평균	3.6	△ 1.6	4.3	△ 0.7	△ 5.9

또한 상기 경영성과에는 석유산업 중 석유 이외의 사업 즉 油公의 化學, 石油開發, 石炭, 運轉유사업, 湖南 精油의 石油化學, 運轉유사업, 京仁에너지의 發電事業, 雙龍 및 極東精油의 潤滑基油事業 경영성과를 포함한 것으로, 수익성이 비교적 양호한 상기사업을 제외한 精油 事業의 경영성과는 더욱 안좋은 실정이다.

즉 '80~'88년중 정유사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마이너스

국내산업간 이익률 비교('83-'88평균)

(단위: %)

	정유	화학	자동차	가전	제조업평균	증권업
자기자본이익률	7.3	8.7	13.5	13.0	9.0	10.1
매출액이익률	0.8	2.8	2.9	1.7	1.6	17.2

1.6%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것은 제2차 석유키 직후인 '80년대 초반에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편, 精油業의 경영성과를 국내 여타산업과 비교해 보면 정유업의 경영성과가 열악함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즉 '83-'88년중 정유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7.3%로서 제조업 평균이익률에 미달할 뿐은 물론 자동차, 가전산업

의 이익률에 비해서는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매출액이익률은 더욱 낮아 동 기간중 정유업은 0.8%를 기록하여 제조업 평균의 절반수준, 化學 및 자동차산업의 이익률에는 1/3수준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유업의 경영성과를 아래와 같이 국내 대기업, 에너지기업, 公企業과 비교해 봐도 정유업의 경영성과가 뒤짐을 알 수 있다.

국내기업간 이익률 비교('83-'88평균)

(단위: %)

	정유	대기업	에너지기업	공기업
자기자본이익률	7.3	8.1	8.8	8.2
매출액이익률	0.8	1.6	4.7	9.4

* 공기업은 '85-'88평균

또한 外國精油産業과 비교할 경우, '83-'88년중 매출액이익률이 日本과는 비슷한 수준이나, 美國, 英國 등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精油業의 경영성과가 이같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여론은 정유업을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 혹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것을 내수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실제에 비해 外形이 큰 石油産業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출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반 국민들 사이에 수출산업은 고생도 많이 하며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반면, 내수산업은 쉬운 환경속에서 경영을 하며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낮은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량 내수산업인 石油産業은 힘들이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란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石油産業이 실제 산업의 규모에 비해 외형이 크다는 점이다. 즉 石油産業의 원가중 原油와 관련된 해외비용이 90%에 달하고, 국내에서 가공되는 부가가치는 10% 미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石油産業의 매출액에는 이같은 원유관련비용이 그대로 포함됨에 따라 석유산업은 실제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비해서 엄청난 외형을 표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60년대와

외국과의 매출액 이익률 비교

(단위: %)

	한국 (평균)	일본 (평균)	엑슨 (미국)	B P (영국)	로얄더치셀 (네덜란드·英國)
'83~'88평균	0.8	0.9	6.0	3.2	5.6

“ 그동안 정부가 전면 통제해오던 석유정책의 공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창의적 노력을 극대화하고, 에너지자원이 시장기능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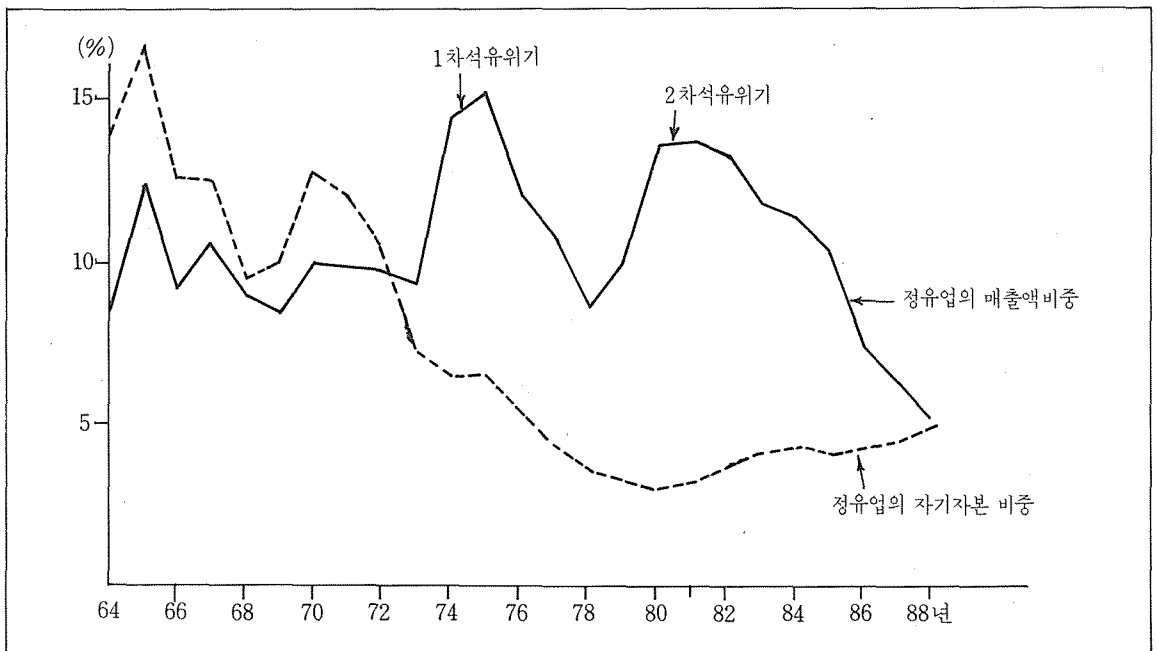
'70년대에 걸쳐 국내 여타산업이 열악한 상태하에 있을 때 석유산업은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의 결과로 대폭 인상된 원유가격이 그대로 매출액에 전가되어 타산업에 비해 엄청나게 큰 외형을 갖게 되었다.

즉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製造業 전체 매출액중 石油産業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년부터 '73년까지는 9~10%선을 유지하였으나, '73년의 제1차 석유위기이후 동 비중이 14~16%로 상승하였으며, '79년의 제2차 석유위기 이후에는 다시 13%대로 진입하였다. 당시 국내에는 약 80개의 업종이 있었는데, 이중 1개업종의 매출액이 10%를 넘는다는 것은 석유산업의

외형규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국제원유가격이 지속적 약세를 보임에 따라 석유산업의 매출액 비중은 크게 감소하여 '87년에는 6.3%를 기록하였으며, '88년 현재는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전체 제조업 이익중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년대에 11.2%로 매출액 비중을 상회할 뿐 '70년대와 '80년대는 각각 6.1%와 5.6%로 매출액 비중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산업의 실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기자본 규모가 매출액 규모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에서 정유업이 차지하는 비중



석유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매출액비중	순이익비중	자기자본비중
60년대	9.2	11.2	11.3
70년대	10.7	6.1	4.9
80년대	9.2	5.6	4.3

그러면 왜 석유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워졌는가. 그것은 석유산업의 매출액 규모가 타업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으며, 이 결과 이익률은 타업종에 비해 낮았어도 절대이익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형성된 잘못된 여론인 것이다. 석유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오히려 「속 빈 강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이다.

3. 石油業界 경영상의 문제점

석유업계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정부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규제를 들 수 있다. 石油精製業·판매업의 허가권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原油 및 石油製品 수출입의 승인권 및 石油製品에 대한 가격관리를 정부가 직접 행하고 있다.

石油製品 가격관리로서 정부는 油種別 최고판매가격을 직접 산정·고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유업계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석유사업기금, 관세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또한 정부는 精油業界 이익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즉 전년도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稅前 16.5%(稅後 9.7%)의 허용이익을 유가산정시 반영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同 許容利潤 초과분을 전액 환수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有價年末精算時에는 實發生費用 일부의 未認定으로 정유업계는 항상 허용이익보다 낮은 경영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유업계 성장이 정체되어 수요구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설비高度化 投資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0년대의 국내 주요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해보면 철강, 전자, 자동차, 전기업종 등에서는 괄목할만한 경영성과의 개선을 기록하였으나 정유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업계의 경영개선에 의한 이익증가가 전액 油價로

업종별 매출액 및 이익비교

(단위 : 억원)

		1982	1984	1986	1988
정유업	매출액	60,877	65,888	55,642	53,933
	이익	532	146	417	653
철강업	매출액	42,474	47,750	55,173	76,203
	이익	201	637	1,288	2,662
전자업	매출액	31,203	66,194	104,939	157,864
	이익	580	1,135	2,538	3,025
자동차	매출액	11,008	17,154	33,423	63,851
	이익	△ 58	611	617	635
전기업	매출액	26,606	31,841	36,492	44,212
	이익	1,829	2,773	3,229	8,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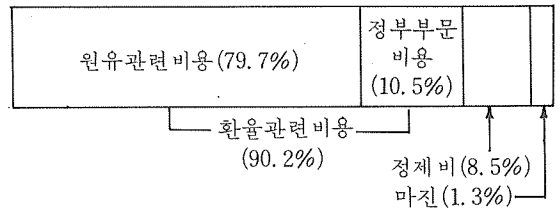
환수됨에 따라 경영개선노력에 대한 유인이 미흡하며, 自社의 비용절감, 수익성개선이 전액 自社의 이익으로 귀착되지 않음에 따라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민간기업의 창의성 발휘기회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

한편, 이같은 정부규제에 따라 정유업계가 열악한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여론은 정부허용이익을 보장이익으로 인식하며, 精油社 경영을 정부보호하의 안일한 경영으로 인식하는 등 실상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

다음으로 정유업계의 문제점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석유부존자원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않아 우리나라에 소요되는 석유에너지는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석유 시장상황의 변동이 국내 석유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중 원유관련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국제원유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 변동폭이 그대로 국내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석유제품원

국내 석유제품 원가구성내역 (공장도가격 기준)



가중 환율관련비용이 약 90%로 환율의 변동 또한 그대로 국내유가에 전달될 수 밖에 없다.

원유가격이 상승할 경우 정유업계의 추가부담은 배럴당 1달러 상승시 연간 2,436억원, 5달러 상승시에는 1조2,180억원, 10달러 상승시에는 2조4,360억원으로 막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원유가 상승시 부담

(단위 : 억원)

상승폭	\$ 1	\$ 5	\$ 10
추가부담	2,436	12,180	24,360

한편, 환율이 연간 1% 상승할 경우 정유업계의 추가부담규모는 연간 359억원, 5%상승시에는 1,772억원, 10% 상승시에는 3,543억원에 달한다.

환율 상승시 부담

(단위 : 억원)

상승폭	1%	5%	10%
추가부담	354	1,772	3,543

그런데 최근 1년간 원유가격 및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정유업계는 현재 막대한 손실요인을 부담하고 있다. 원유가격은 '89년초의 배럴당 12달러 수준에서 현재는 18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거의 50%가량 상승하였으며, 환율은 '89년 4월 대비 약 5% 상승하였다. 더우기 환율은 금년들어 급격히 상승하여 3월말 현재 약 3.5

% 상승하였으며, 이것은 연율로 환산할 경우 14% 수준의 상승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3월말 현재 약 600억원의 손실요인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수립이 지연되어 손실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4. 제언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의 분배와 이에 따른 각 경제단위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각자의 창의적 노력이 결국 사회전체의 富의 크기를 키우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가장 탁월한 제도임은 이미 古典의인 이론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기능은 이러한 시장기능이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조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공정한 룰에 의하여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자주적·창의적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의 폭은 최대한 확대·보장되어야 하며, 기업 스스로도 자율적 문제해결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도 그동안 정부가 전면 통제해오던 석유정책의 공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창의적 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경제의 보탬이 되게하고, 에너지자원이 시장기능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원유가격 및 환율추이('89. 1~'90. 3)

